

성서 기본 지식

D.HEASTER 著
盧 賢 基 譯

基督教 教理 學習
教科書

학습 5

하나님 나라

韓國 聖書 研究院 發行

www.korbible.net

학습 5: 하나님 나라

- 5.1 하나님 나라: 그 정의
- 5.2 그 나라 수립되지 아니하였다
- 5.3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 5.4 장차의 하나님 나라
- 5.5 천년왕국

변론 15: 그 나라가 이땅에 수립된다

변론 16: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

5.1 하나님 나라: 그 정의

이전 학습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영생으로 보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충성된 자들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은”(마.4:23),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다(갈.3:8).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자기처럼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세상은 “사람들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단.4:17).

그리스도 재림으로,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계.11:15).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완전히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였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이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한다(마.13:11; 막.4:11과 비교하라). 성서에는 ‘하늘에 있는 나라(the Kingdom in heaven)’라고 기록된 곳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세우실 나라는 ‘하늘 나라’이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같이(시.103:19-20), “천사들과 동등하게 될 자들”(눅.20:36), 그 의인들만이 이 땅에서 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애에서 노력한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다(마.25:34; 행.14:22). 그러므로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빌립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행.8:5,12). 바울이 구절 구절 우리에게 다짐하여 말한 바, “하나님 나라가” 그의 전도의 주된 주제였다(행.19:8; 20:25; 28:23,31). 하나님 나라가 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교리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리라”(행.14:22).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생의 터널 끝에 있는 빛이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에는 희생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장래를 알고자 고민하고 있었다(단.2장). 그는 금속물로 형성된 큰 사람의 조상(彫像)이 서있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 다니엘은 그 조상(彫像)의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 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단.2:38). 그 후에 여러 제국이 그 제국을 계승하여 일어났다가 멸망하였는데, 드디어

2 하나님 나라

마지막 제국이 일어나게 되었다.그 나라에 관한 예언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그 발가락이 열마는 철이요, 열마는 진흙이므로, 그 나라는 열마는 튼튼하고 열마는 부숴질만 한 것이라”(단.2:42).

그 제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 현재 유럽 세계로 그 세력은 균형있게 열마는 강하고 열마는 약한 상태이다.다니엘은 작은 돌(石)이 그 조상(彫像)의 발을 쳐서 그 조상을 아주 부숴버리고, 그 찌른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차게 된 것을 보았다(단.2:34-35). 그 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마.21:42; 행.4:11; 엡.2:20; 뱀전.2:4-8).그 “태산(泰山)”은 세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다.그리고 그 나라는 그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세우실 것이다.그런데 그 예언은 그 나라가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 있을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나라는 실제로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온전히 수립될 것을 다른 구절들에서도 주체로 논하고 있다.바울은 “그 나라가 나타날 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재판장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딤후.4:1).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큰 산과 같이 생각하는 다니엘의 사상에 따라서, “말일에 이르러는 야웨의 전과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것이라”고 그 나라가 세상에 세워질 것을 묘사하였다(미.4:1-4).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다윗의 왕위를 예수께 주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寶位)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1:32,33).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에 올라, 그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그것은 그리스도 재림시에 있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것은 단.2:44과 연관되어 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의 재림시에 수립될 나라를 그와 같이 묘사하였다.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계.11: 15).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가 땅에서 왕노릇을 시작할 특정한 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이 땅으로 재림하여 시작될 것이다.

5. 2 그 나라 수립되지 아니하였다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개념이 널리 퍼져있다.그리고 신자들은 ‘구원 받아’, 그 나라에 잠재적 지위가 주어졌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세상에 돌아와서 그 나라를 세우지 아니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3

우리가 이제까지 학습한바, “혈(血)과 육(肉)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전.15:50)고 하신 말씀에서, 그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침례를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 그 나라에 관한 복음(마.4:23; 갈.3:8,27-29)의 기본이 되는 그 약속의 후사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약.2:5).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에(마.25:34; 고전.6:9,10; 15:50; 갈.5:21; 엡.5:5),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장차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도 신자들의 소유가 되지 아니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제자들의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갔다. 그가 떠난 동안 그의 종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했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저희를 불러 그 책임에 대하여 심판하였다’(눅.19:11-27).

그 귀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는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와서 성도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돌아오시지 아니한 지금, “그 종인 신자들이” 그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다음은 그것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다:-

- “내 나라는 이 세상(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18:36). 그렇지만 그 때에도 예수께서 “내가 왕이라”(요.18:37)고 말씀하셨다. 그가 왕이라고 하신 것은 그의 나라가 수립되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1세기 당시의 충성하였던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막.15:43).

-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마.26:29)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그 나라가 장차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전도였던 것이다(눅.8:1).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에는(눅.14:15), “장차 떡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해설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 말씀을 계속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눅.22:29-30).

4 하나님 나라

- 예수께서는 그의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시고 해설을 붙여 끝맺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의 재림 전인 지금 그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이다.
-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리라”(행.14:22). 많은 환란을 겪으면서도 신자들은 그 나라를 고대하며 진지하게 구하고 있었던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마.6:10).
-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살전.2:12). 이에 부응하여 우리는 영적 생활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해야 할 것이다(마.6:33).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그 나라에 관한 시기가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정통적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성구 한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신자들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기본 신앙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1).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로 해야 한다. 또한 그 문맥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열성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약웨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막.11:9-10)하며 환호하였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자라고 하였다”(마.3:2,3).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눅.17:20-24) 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인자의 오심에” 관한 말로 대답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리킨 것은, 갑자기 능력적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몹시도 바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라는 겸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이미 와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메시아)는 볼 수 있게(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서있느니라 -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눅.17:20-21). 그 “가운데” 라는 헬라어 전치사(前置詞)는 “entos”로 “안-in”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로, 그 나라의 통치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있다는 말이다.

5.3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將次 信者들에게 주실 報償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 - 비록 짧은 期間이지만 苦難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動機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는 모든 날을 將次 世代의 驚異로운 것을 恒常 認識하고 理解하려는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이다. 그 나라는 信者들의 靈的 受苦의 代價를 總計하는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完全한 宣言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關하여 聖書가 仔細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내려고 生涯 동안 努力해도 몇가지 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그 한 方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形態로 存在하였던 過去의 하나님의 나라를 認識하므로 將次 있을 하나님 나라의 基本 原則이 攄得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再臨 後에 再建되는 이스라엘 나라인 것이다. 將次 하나님의 나라가 構成될 輪廓에 對하여 우리가 理解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에 關한 많은 情報가 提供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王으로” 자주 描寫되었다(사.44:6; 사.41:21; 43:15; 시.48:2; 89:18; 149:2와 比較). 이스라엘 百姓을 그 나라라고도 하였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紅海를 건넌 後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言約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始作하였다. 그들이 그 言約을 受諾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百姓이 되었다”(출.19:5,6).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매, 유다는 야웨의 聖所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領土가 되었다”(詩.114:1-2). 이 言約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시내 曠野를 거쳐, 約束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 定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王이었지만, 그들은 王들보다는 士師들(기드온, 삼손 등등)이 다스렸다. 그 士師들이 王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指示로 그 땅 全體가 아니고, 그 一部에서 그들을 다스리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悔改시키든지, 怨讐에게서 救出하든지 하는 하나님의 特別한 目的에 依해서 세우심을 받았었다. 이스라엘이 士師 기드온에게 그들의 王이 되어줄 것을 要請했을 때에 그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삿.8:23)고 對答하였다.

그들의 마지막 士師는 사무엘이었다. 그의 때에 이스라엘이 周圍의 나라들처럼 그들을 다스릴 王을 要請하였다(삼상.8:5-6). 이스라엘의 全 歷史를 通하여, 하나님의 百姓인 그들은 하나님과의 緊密한 關係를 過小評價하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世上 나라와 같이 살려고 그 關係를 犧牲시키었던 것이다. 이런 誘惑은 現代 世上에서 더욱 深刻하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슬픔을 나타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自己들의 王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8:7).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王들을 주셨다. 그 첫째 王이 懦弱한 사울이었다. 그 후에 義로운 王

6 하나님 나라

다윗이 나왔고, 그의 後孫들이 王이 되는 王家를 이루었다. 이스라엘 百姓은 하나님의 王權을 拒絕했었지만, 좀더 靈的인 王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自己 自身の 생각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代身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의 統治 原理를 깨닫는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야웨의 나라 寶位에 앉히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대하.9:8; 대상.28:5; 29:23)고 하신 말씀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平和와 繁榮을 누렸던 솔로몬의 統治는 將次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豫示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代身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王이었던 것은, 將次 예수께서 하나님을 代身하여 이스라엘 王으로서 하나님의 寶座에 앉아서 다스릴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마.27:37,42; 요.1:49; 12:13).

舊約聖書에 記錄된 여러 義로운 王들이 將次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리스도 統治의 豫表로 나타났다. 솔로몬王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爲하여 聖殿을 세웠던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將次 그 나라에서 聖殿을 세우실 것이다(겔.40章-48章). 히스기야王과 솔로몬王이 周圍의 여러 나라에서 朝貢을 받았었고(왕상.10:1-4; 왕하.20:12), 이스라엘 땅이 놀랍게 肥沃하고 繁榮했던 것과 같이(왕상.10:5-15; 사.37:30), 全世界에 펼쳐질 그리스도의 나라는 보다 더 次元이 높게 繁榮할 것이다.

솔로몬의 난혼(亂婚)

솔로몬 왕의 시작은 선하였지만, 젊었을 때에 문란한 혼인 생활로 말미암아 늙어갈수록 더욱 그의 靈力(靈力)이 약화되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웨께서 일찌기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神)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사랑하였더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야웨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 솔로몬이 야웨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야웨를 온전히 좇음 같이 좇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야웨를 떠나므로 야웨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臣僕)에게 주리라”(왕상.11:1-11)고 저주하였다.

솔로몬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과의 관계는 그로 하여금 그들의 거짓 신들을 섬기도록 이끌어갔다. 왕비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들의 신들이 그가 섬기는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

하나님 나라 7

는데 어떤 영적 방해도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하였다”. 즉 그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의 양심에 전혀 가책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야웨 앞에 악이 되어”, 드디어 솔로몬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경고를 반복하여 들어왔다(출.34:12-16; 수.23:12-13; 신.7:3).

그리스도와 聯合하여 浸禮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靈的 이스라엘 百姓이 되었다. 우리는 靈的 이스라엘이므로, “主 안에 있는 者”(고전.7:39), 卽 “그리스도 안에 있는 信者와” 婚姻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信者 되기 前에 婚姻하였으면 그대로 헤어지지 말아야 하지만, 婚姻 關係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야 한다(고전.7:12-14)고 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者와 婚姻하게 되면 結局 믿음에서 離脫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고 마는 것이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아내들에 對한 하나님의 警告를 確實히 認識하지 못하였으므로 失敗하고 말았다: “저희가 丁寧코 너희 마음을 돌이키리라”(왕상.11:2; 출.34:16). 오직 自制와 悔改만이 이 그릇된 慣習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일찌기 이른바 正統 教會들이 그리스도人의 所望의 根據가 되는 유다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指摘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과 婚姻한다면, 우리를 救援하는 榮光스러운 敎理가 漸次 衰退하여 버리게 된다. 이런 까닭에 이삭과 야곱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믿음 있는 女人과 婚姻하였던 것이다. 이삭은 그 女人을 찾기 爲해 40세가 넘도록 婚姻하지 못하였다(창.24:3-4; 28:1).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대人들이 異邦人과 婚姻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憤怒하였던 것은 이 問題의 深刻性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스.9:12; 느.10:29,30).

婚姻 問題는 우리 그리스도人이 깊이 考慮해야할 重要한 問題이므로 이 段階에서는 이만하고, 학습 11.4에서 더 깊이 熟考하여 우리 생각을 確實하게 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審判

솔로몬의 背敎의 結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分裂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支派와 베냐민支派 그리고 므낫세支派의 半을 다스리게 되었고, 여로보암이 그 다른 열支派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 열支派의 나라를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였고, 그 두支派의 나라를 유다라고 하였다. 이 모든 支派의 百姓이 大部分, 솔로몬의 그릇된 것을 本받았고, 그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主張했지만, 同時에 周圍의 異邦 神들도 敬拜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先知者들을 通하여 悔改하라고 反復하여 그들에게 呼訴하였지만, 아무 效果가 없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刑罰을 내려,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의 怨讐의 땅으로 쫓아내버렸다.

성서 기본 지식

8 하나님 나라

이것은 앗수리아와 바벨론 帝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侵略하게 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가게 하므로 그 懲戒를 實施하였다: “主께서 여러 해 동안 容愆하시고, 또 先知者들로 말미암아 主의 靈으로 저희를 警戒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저희를 列邦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느.9:30).

그 열支派의 이스라엘은 善한 王이 全혀 없었다. 여로보암, 아합, 여호아하스 等等, 모두 偶像崇拜者로 列王記에 記錄되었다. 그들의 마지막 王은 호세아였다. 그의 統治 동안 이스라엘은 앗수리아에게 滅亡 當하고 그 열支派는 捕虜로 사로잡혀갔다(왕하.17장). 거기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 두支派의 유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大部分이 惡하였으나, 히스기야, 요시아 等等, 善한 王들이 몇몇 있었다. 그 百姓의 繼續된 犯罪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나라를 그들의 마지막 王 시드기야 때에 顛覆하시고 말았다. 이것은 바벨론의 侵略에 依해서 遂行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에 捕虜로 사로잡혀가게 되고(왕하.25장), 바벨론에 70년간 捕虜로 남아있다가, 그 中 얼마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引導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後 그들은 그들 自身の 王을 가져본 적이 없고, 바벨론, 헬라, 그리고 로마帝國에게 다스림 받았었다. 예수께서는 바로 로마 帝國의 統治時代에 태어나셨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拒絶한 까닭에, A.D.70년 로마軍隊가 예루살렘을 完全히 破壞하고 그들은 世界 到處에 흩어지게 되었다. 只今으로부터 100年前 그들이 故土로 돌아오기 始作하여, 그리스도의 再臨을 豫告하고 있다.

先知者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終末을 告한 것을 이같이 豫言하였다: “너 極烈하여 重傷을 當할 이스라엘 王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罪惡의 끝 때니라. 나 主 야웨가 말하노라. 冠을 除하며, 冕旒冠을 벗길지라(시드기야가 王位에서 쫓겨날 것을 말한다):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者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겔.21:25-27). 하나님 나라의 終末을 여러 先知者들이 슬피하였다(호.10:3; 애.5:16; 렘.14:21; 단.8:12-14).

또한 세番씩이나 “엎드러뜨린다”(겔.21:25-27)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王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番 侵略 받을 것을 말한 것이다. 注意 깊은 聖書 研究者는 이 句節들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王이 取扱 當한 것에 匹敵하는 다른 本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의 滅亡은 하나님의 나라의 滅亡이었다(학습 5.2를 보라).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 “내가... 이스라엘 族屬의 나라를 廢할 것임이니라”(호.1:4).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라고 하신 것은 “마땅히 얻을 者가 이를 때에” 그 나라가 再生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再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그의 祖上 다윗의 位를 주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無窮할 것이다”(눅.1:32,33). 그러므로 그 나라에 關한 回復의 約束이 成就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回復

舊約聖書全體를 통하여, 메시아의 再臨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이스라엘의 回復에 關한 豫言이 큰 主題로 浮刻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弟子들이 이것에 同意하고 있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문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回復하심이 이때이니까?” 卽 ‘겔.21:27의 豫言이 只今 成就될 것이니이까?’ 비록 그 後에 卽刻 天使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의 再臨이 있을 것을 確約했었지만, 예수께서는 自己의 再臨할 때를 그들이 알바가 아니라고 對答하셨다(행.1:6-11).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回復은 그의 再臨의 때에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 거룩한 先知者들의 입을 依託하여 말씀하신바, 萬有를 回復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 3:20, 21)고 하였다. 그가 再臨하실 때에 옛 이스라엘이 回復되어, 하나님 나라가 再建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回復은 “하나님의 거룩한 先知者들의 豫言의 主題였다”:-

- “다윗의 帳幕의 王位(그리스도 再臨으로- 눅.1:32, 33)는 仁慈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位에 앉을 者(예수)는 忠實함으로 判決하며 公平을 求하며 義를 迅速히 行하리라”(사.16:5).
-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帳幕(다윗의 寶位- 눅.1:32, 33)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退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암.9:11)고 豫言하셨다. 이것은 分明히 그 나라의 回復을 말한 것이다.
- “그 子孫은 如前하겠고, 그 會衆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라”(렘. 30:20).
- “야웨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擇하시리니”(슥.2:12), 그곳을 全世界의 나라의 首都로 삼는다는 것이다(시.48:2; 사.2:2-4와 비교).
- “내가 유다의 捕虜와 이스라엘의 捕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 이 城邑이 世界 列邦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讚頌과 榮光이 될 것이요, ... 이는 내가 이땅의 捕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 모든 城邑에 다시 牧者의 居할 곳이 있으리니, 羊무리가 다시 計數하는 者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렘.33:7-13).

10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再臨하여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所望이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聯合하여 浸禮를 받음으로 그 “所望에 同參하는” 것이다.

5.4 장차의 하나님 나라

이 학습의 1과와 3과에서는 그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 모든 곳의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약속되었던 것을 알고 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으로 부연해 말하였다(롬.4:13). 다니엘서 2장의 그 조상(彫像)에 관한 예언은 그리스도가 적은 돌로서 재립하여, 그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을 설명하고 있다(시.72:8).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이나, 또는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계적인 것인, 그곳은 확실히 그 나라의 중심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활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제사장과 왕이 되어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계.5:10). 그들 중에 어떤 자는 열 고을 또 다른 자는 다섯 고을 등등, 여러 지역에 분배를 받아 다스릴 것이다(눅.19:17). 그리스도는 그의 왕권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계.2:27; 딤후.2:12).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신자들) 공평으로 정사(政事)할 것이라”(사. 32:1; 시.45:16).

그리스도께서 재건된 다윗의 보위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눅.1:32,33).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위와 통치권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므로, 그곳이 그 나라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 지역에는 또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겔.40장-48장).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말.1:11), 그 성전은 모든 사람의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며,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야웨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슥.14:16)하였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말일에 야웨의 전의 산이(산은 나라를 상징한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인간의 나라들 위에 우뚝 설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웨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道)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웨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사.2:2-3). 이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산에 올라가므로”, 점차적으로 세계에 널리 전파될 그 나라에 관하여 묘사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배에 대하여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림을 보

게 된다.

오늘날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와 아버지로서 그를 참으로 알고 있는 근거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 또는 감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세계적 열광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땅끝 모든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인간의 사법과 행정 제도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그 나라에는 “그 율법과 야웨의 말씀으로” 절대 공평한 세계적 사법제도가 확립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세계에 공포될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 ‘교육 기간에’ 모여들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일반의 소원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것은 국제간의 마찰을 감소시킬 것이다. 개인 간에도 그의 생애 동안 그 지식을 얻고자 그 자신을 헌신할 것이다.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이 묘사는 사.65:5에 나타낸 그림과 유사한 것으로,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열방”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 나라에 관한 예언과 완전히 연결되고 있다(슥.8:20-23):-

-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야웨를 찾고, 야웨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야웨를 찾고 야웨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명이 유다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유대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다(신.28:13).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를 근거로 하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무지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교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열심히 토론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 때에 사람들의 종교적 대화는 오늘날 세계에 퍼져있는 황당무계한 허튼 소리가 아니고, 영에 관한 것들일 것이다.

이렇게 경건한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사.2:4)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와

12 하나님 나라

분쟁에 대한 그의 절대 공정성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들의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게 하고 전쟁 연습을 포기하게 할 것이다.“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리라”(시.72:7).-그 때에는 영적인 것이 높임 받고,하나님의 본성인 사랑, 자비,공의,등등을 나타내는 자들이 존경 받을 것이다.이것은 자만과 자기 주장, 이기적 야망만을 높이는 현 사회와는 아주 대조가 될 것이다.

자진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므로”,이 땅에는 경작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아담의 범죄의 결과로,이 땅은 저주를 받아(창.3:17-19),산물을 얻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그 나라에서는“산 꼭대기의 땅에도 과곡이 풍성하고,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릴 것이라”(시.72:16)고 하였다.“그 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라”(암.9:13).이와 같이 땅은 비옥하게 되고,에덴 동산에 내렸던 그 저주는 제거될 것이다.

그와 같은 거대한 농업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이다.그 나라에 관한 예언은 사람들이 자급 자족하는 농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상을 준다:-

-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미.4:4).

이 자급 자족의 제도는 보수로 노무자를 고용하는 제도에서 생겨나는 혹사(酷使)를 없이하게 될 것이다.그 때에는 다른 사람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일생 동안 일한다는 것은 옛말이 될 것이다.

-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사.65:21-23).

그 때에는 불모의 땅이 비옥하게 바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바,세상에는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고,행복의 향기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사.35:1-7).그곳에서 일하는 자들의 생활은 아주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다.“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여 못이 될 것이다”. 사나운 동물들의 싸움도 없어질 것이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젖먹는 아이가 서슴없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놀게 될 것이다”(사. 11:6-8; 65:25).

하나님 나라 13

모든 피조물에 가해졌던 저주가 크게 감소될 것이므로, 인류에게 내렸던 저주도 또한 감소될 것이다. 그것에 관하여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진다”고 상징적으로 말하고(계.20:2-3) 있다. 그 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길어져, 100세나 되어 죽은 자를 어린 애가 죽었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사.65:20). 여인들 또한 해산으로 인한 고통이 감소될 것이다(사.65:23).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가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사.35:5-6). 이것은 그 기적적 영의 은사를 다시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히.6:5 참고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대의 섬들 같은 낙원에서 사람들이 자연 풍광 속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것과 같이 의인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겠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목적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땅이 그에게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가지 야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합.2:14).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다: “내가 진실로 살아 있는 한, 이 땅은 온전히 야웨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라”(민.14:2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그대로 반영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됨으로 하나님은 실제로 세상에 반영될 것이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하나님 나라)을 차지하며, 향락적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평안(영적인 것)으로 즐기리다”(시.37:11).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를 것임이요”(마.5:6).

소위 그리스도교계에서는, 그 나라에서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을 마치 ‘당근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듯 하여’ 사람을 얻고자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성(理性)으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침례를 받고, 신자는 어떤 때든지 이 인식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본 저자는 선한 양심에 가책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용납되는 즐거움으로 사는 10년의 생활은 이 세상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영광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너머로 나를 취해가고 있다는 생각에 잠기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조금이라도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세상 우선권과 물질주의를 멸시하는 동기를 줄 것이다. 그 나라가 즉각 임하리라고 과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신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마.6: 30-34).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실제와는 비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14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의로운 자가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지 죽음을 피하고 영원계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복음의 소망을 인간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나라를 소유하려는 우리의 동기는 분명히 날마다 변화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다. 우선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진정 순종하는 동기로서 침례를 받고 그 복음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권하시고 있는 그 소망을 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우리의 이유를 확실히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5.5 천년 왕국

그 나라에서의 생활에 관한 우리의 이제까지의 학습에서, 사려깊은 독자는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그림은 너무나 인간적이 아닌가?” 그 나라에서 사람들은 역시 자녀들을 생산하고(사.65:23) 죽음도 격으면서 살 것이다(사.65:20). 이 사람들에게는 역시 그리스도께서 판결하실 분쟁이 있을 것이며(사.2:4), 그들은 현재보다는 용이하겠지만, 역시 생존하기 위하여 땅에서 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의인들이 영생을 얻고 그 본성이 자녀를 생산하지 아니하는 천사와 동등하게 되는 그 약속과는 아주 먼 것 같이 보인다(눅.20:35-36).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부분에 천년 동안의 기간이 있다는 사실에 있다(계.20:2.7). 이 천년 동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 1) 성도들: -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자들은 심판대에서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주: ‘성도란’ 불리움을 받아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참된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 2) 그리스도 재림 때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죽을 수 밖에 없는 보통 사람들: - 그들은 그 심판에 책임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 남게 된다(눅.17:36). 그 남은 자들은 그 둘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사람들, 그 성도들은 죽을 수가 없고 자녀를 생산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15

둘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그리스도 재림 때에 살아 있던 자들이지만,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다.의인의 보상은 “그 나라에서 제사장과 왕이 되어 이 땅에서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계.5:10).왕이란 다스리는 자이다.그러므로 그리스도 재림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 왕들의 다스림을 받도록 살아 남을 것이다.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광의 보상을 받아,이 땅에서 왕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계.2:26,27).

달란트에 관한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이 그 때에 적용될 것이다.그 충성된 종들이 그 나라에서 열 고을,다섯 고을을 다스리게 하였다(눅.19:12-19).하나님의 도(道)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선포된 후 즉시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사.2:2-3).그 산(山)은(단.2:35,44)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나라가 세계에 점차적으로 퍼져나갈 것을 회상해보자.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이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을 때,제사장들의 의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말.2:5-7).이 목적을 위해 그들은 이스라엘 여러 도성에 머물러있었다.그 나라의 재건에서,성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계.5:10).

그리스도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1. 심판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죽음에서 일어나서,그 심판을 받기 위하여,심판대로 이끌려 갈 것이다.
2. 그 책임이 있는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며,의로운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또한 그 심판은 그리스도에게 대항한 나라들에게 내릴 것이다.
3. 그때에 의로운 자는 살아 남아 있는 자들,심판에 책임이 없던 불신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것이다.
4. 이 나라는 천년 동안 계속될 것이며,그 천년 동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므로 그들은 심판에 책임이 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지만,지금의 사람보다 더 오래 살며 행복될 것이다.

16 하나님 나라

5. 그 천년왕국 끝에,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항하는 일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하실 것이라고 하셨다(계.20:8,9).
6. 그 천년 끝에, 그 동안에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계.20:5,11-15).
7. 그들 중에서 악한 자는 멸망 받고, 의로운 자는 영생을 얻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동참할 것이다.

그 때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완성된다. 이 세상은 의로운 자들, 죽지 아니함을 입은 자들만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 엘로힘’(능력 있는 한 그룹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되실 분 - **He who will be revealed in a group of mighty ones** 라는 뜻)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때에는 이 땅에 죄가 없어지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 뱀의 후손이 머리를 맞아 멸망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창.3:15).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하시리니, 그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전.15:25-28).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고전.15:24), 곧 그 천년 왕국의 끝이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되신다”는 것밖에 성서에 기록된 것이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생을 얻는 것, 곧 하나님의 본성을 입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기쁘시게 할 것 뿐이다. 천년 후에 어떤 것이 있을지는 단지 추상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독자에게 본 학습을 성서 구절과 함께 재독하시기를 부탁 드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의 목적 전체가 그의 창조적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 그 일부가 되도록 계획한 것이다. 침례는 그 나라에 관한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 침례를 받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그 영광스런 세대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거역하게는 할 수 없는 것이다:-

-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후.4:17).

변론 15: 그 나라가 이 땅에 수립된다

구약성서의 예언들에 있는 그 나라에 관한 실제의 묘사들은 소위 신학자들과 여러 교파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매우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이 지구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우리의 보상 받는 곳이 땅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곳을 가리킨 비유적인 말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성서 해석의 기본 원칙은,영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한, 항상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실례를 들자면,계시록의 첫절은 그 비전의 대부분이 상징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바(계.1:1),그것이 계시록 해석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또 어떤 구절을 상징적으로 읽어야 할지 아니할지를 지적할 수 있는 적합한 언어 사용법과,사실주의의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우리가 “땅이 술취한 사람과 같이 비틀거린다”는 것을 읽을 때에(사.24:20),그것은 상징적으로 읽어야 할 종류의 언어 사용법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그와는 대조적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데 사용한 말은 문자적임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그것을 상징적으로 취급해야 할 암시가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수립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므로,그들은 설명할 수도 없는 이론을 고안해냈다.그 나라가 영적이라든가, 또는 하늘에 있다든가 하는 그들의 대체론(代替論)은 막연하고 구체적이 아니므로 믿을 것이 못되며,요구하거나 권면할 것도 못된다.성서에 ‘저는 사람이 뛰게 되며, 또는 사막이 옥토가 된다’는 묘사를 모두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그것들을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게 대답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무엇이 상징적이나?’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 것이다.그것들이 상징적인 것으로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나라에 관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그 나라의 어떤 곳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나타난 모든 증거로 분명하게 된다.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약속했던 이 지구를 파괴하지 아니할 것

18 하나님 나라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임할 그 나라에 관하여 성서에 묘사된 것을 실제로 기대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구절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야웨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사.45:18).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신다면 땅의 창조는 헛되이하신 것이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죽지 아니할 사람들을 거하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하늘은 야웨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시.115:16).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전.1:4).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시.104:5).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옵나이다”(시.119:90).

“저가 또 그것들을(태양계 조직)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命)을 정하셨도다”(시.148:6).

계.20:4에 기록된바, 이 기간의 특성에 관한 다른 예언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 천년 동안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계시록에도, 모든 숫자를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많은 인용이 “제삼자”로 되어 있으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그 천년을 안식(安息)으로 묘사된 것이다(히.4:4-9).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이라”(벧후.3:8)고 하였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6000년이 지나고 천년의 안식이 오는 것이다.

창조에 관한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 창조로부터(B.C.4000년으로부터 6000년(6일)은 A.D.2000년에 해당된다. 그 천년 왕국의 시작이 A.D.2000년에 해당된다.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박하였다.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짧은 생애의 모든 순간을 그의 오심을 대비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변론 16: 이스라엘 역사 요약

아브라함. 히브리 족속의 첫째 사람 아브라함은 갈데아 우르에서 불려내심을 받았었다.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삭.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다.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기에,하나님은 서약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의 약속을 확인하였다.이삭이 그의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여 스스로 제물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창.26:3-5).

야곱.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다.그에게도 그 약속이 반복되었다.그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으며,르우벤이 맏아들이요,베냐민은 그의 막내였다.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요셉은 가장 총애 받던 아들이었다.

요셉. 그는 젊었을 때에 자기 자신이 그의 형제들의 주관자가 되는 두가지 꿈을 꾸었다.그의 형제들이 그를 질투하여,그를 애굽사람의 종으로 팔아버렸다.거기서 그는 주관자가 되어,그 땅을 괴롭힐 칠년간의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저장하게 하였다.그 때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가서 살게 되었다.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그곳 고센 땅에서 살았다.나중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여,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모세. 모세가 그 때에 태어났다.그는 갈대 상자에 숨기웠다가,바로의 딸,공주에게 발견되어,그녀의 양자가 되었다.젊었을 때에,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애굽사람을 죽였다.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간을 이드로의 집에서 목부(牧夫)로서 일했다.그 때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그는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을 받았다.그곳으로 가서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기적의 징조들로 입증하였다. 그렇지만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그러므로 열가지 재앙, 개구리,암흑,우박,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었다.이스라엘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발라서 그 마지막 재앙을 넘길 수가 있었다.이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을 예표했던 것이다.이 절기가 유월절이 되었다.

출 애굽.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애굽을 떠나도록 허용되었다.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밤에는 불 기둥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지나갔다.바로의 군대가 홍해로 그들을 추격하였다.그 물이 기적적으로 열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통과하게 되었고,그 물은 다시 덮이어서 애굽 군대는 모두 수몰되고 말았다. 그

20 하나님 나라

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거쳐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나게하여 주셨고, 만나라는 식량을 아침 마다 주어 먹게 하였다.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모세의 법을 주셨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였다. 그들에게 특별한 장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할 성막을 만들었다. 그들은 거기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두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직은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약속의 땅. 그들이 드디어 그 땅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그 때에 그들은 열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나, 그 중 열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남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곳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열 사람과 합세함으로, 그들은 20세 이상의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죽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후계자이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간 자이다. 그들이 첫번째 점령한 도성은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 도성이었다. 그 후에는 아이성을 차지하였다. 그들이 한번 그 땅에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왕이었지만,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었었다. 그 사사들에는,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할 때에 그들의 원수에게서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체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위의 나라들에게서 침략을 당하는 형벌을 받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또 다시 범죄하는 그런 것이 되풀이 된 것이다. 그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다. 그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 주위의 나라들처럼, 인간적 제왕을 요구하였다.

왕들. 그들의 첫째 왕은, 그 시작은 좋았지만,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던, 사울이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윗을 몹시도 핍박하였다. 그가 죽은 후,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서, 그 위에 오른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지만, 그의 주위의 나라들에서 취한 많은 아내들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벗어난 결과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양분되는 비극적 운명을 맞게 하였다. 그가 죽은 후, 그 나라는 둘로 갈라져, 열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남은 두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옹립하고 유다 나라를 형성하였다.

그 열지파의 이스라엘 나라는 선한 왕이 별로 없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할 것을 호소했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앗수리아가 침략하여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결국 고국으로

하나님 나라 21

돌아오지 못하고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다.

그 두지파의 유다 나라는 아사, 히스기야, 요시아 등등 몇 사람의 선한 왕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점차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어 그들을 침략하게 하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70년을 지내게 하였다. 그 후에는 그들이 왕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 70년 후 얼마의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의 인도로 고토에 돌아 왔다. 그들은 바사왕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후에는 헬라,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는 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 A.D. 70년,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하였고, 결국 모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근년에 그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하여 그 구약성서의 예언의 일부가 성취되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재생은 곧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확실한 징조이다.

22 하나님 나라

학습 5: 학습 문제와 해답

1. 다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수립의 때는 어느 것인가?

- a) 그 나라는 이미 수립되어있다.
- b) 그리스도 재림의 때.
- c) A.D. 1세기 오순절 때.
- d) 회개한 신자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

2.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에 존재했는가?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3. 그 나라는 언제 끝났는가?

4. 천년왕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 a)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롭게 다스리는 것
- b) 하늘에서 천년 동안 신자들이 다스린다
- c) 땅에서 천년 동안 사단이 다스린다
- d) 땅에 세워질 천년 동안의 하나님의 나라

5. 그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6. 천년왕국에서 신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 a) 죽음이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 b) 하늘에서 다스리는 자
- c) 어떻게 될지 모른다
- d) 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산다

7.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는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 a) 신약성서에만
- b) 예수와 사도들에 의해서
- c) 구약과 신약 성서 모두에
- d) 구약성서에만